

한 평생 쌓아온 학문·예술 흔적 한자리에

전북대 인문대 최남규 명예교수, 정년퇴임 기념 서예 서각작품 전시회 4월 11일까지 개최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명예교수인 최남규 교수가 한 평생 쌓아온 학문과 예술의 흔적을 한 자리에 모아 선보이는 서예 서각작품 전시회를 열어 주위에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최 교수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55번지에 있는 평화동 오보재 갤러리에서 자신이 한평생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서예와 서각 작품 60여 점을 선보이는 개인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 8월 말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장년 퇴임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로, 지난 30여 년 강단에서의 삶과 그 이전부터 이어진 학문적 여정이 응축된 결실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깊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단순한 '글씨'를 넘어선 문자들의 숨결이다. 붓끝에서 시작된 획은 칼날로 이어지고, 다시 색과 질감으로 확장되며 하나의 생명처럼 살아 움직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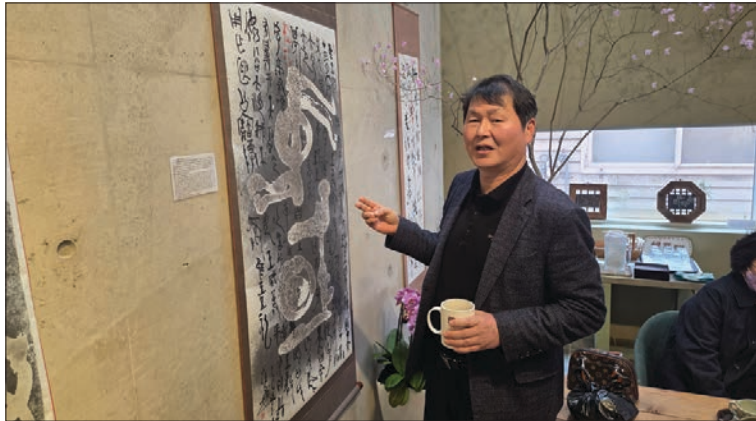
중국 고대 갑골문과 금문 등 고대 문자를 바탕으로 한 서예와 서각 작품들은 마치 수 천 년 시간을 건너 오늘의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듯하다.

1960년 임신 실행면에서 태어나 전라고과 전북대학교를 거쳐 학문의 길에 들어선 최 교수는, 한·중 수교 이전 대만 유학길에 올라 대만 동해대학에서 고대 중국 언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다시 중국 남경대학에서 고대 중국 문화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학자로서의 토대를 다졌다.

이후에 다시 중국 남경예술대학에서 서예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문자와 예술을 넘나드는 독자적 영역을 구축해 왔다.

전라북도 서예대전과 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작가로 활동하며 수십 차례의 전시에 참여 온 그는, 학자이자 예술가로서 보기 드문 이력을 쌓아왔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미적 표현에 머물지 않는다. 『논어』와 『노자』의 고전의 문장, 그리고 『소동파』의 시구 등은 작품 속에서 다시 태어나 관람객에게 삶의 태도와 성찰을 묻는다.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명예교수인 최남규 교수가 한 평생 쌓아온 학문과 예술의 흔적을 한 자리에 모아 선보이는 서예 서각작품 전시회를 열어 주위에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문자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그의 신념처럼, 한 획 한 획에는 인간과 세상을 향한 최 교수만의 독특한 깊은 사유가 배어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목재와 돌, 옛 문장 등 우리 선조들의 생활의 흔적이 깃든 재료 위에 새겨진 서각작품과, 초와 물감, 우유를 활용한 실험적 기법이 더해져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새로운 미감을 선사한다.

이는 최 교수가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한 ‘문자 예술’이 어떻게 시대와 소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번 전시는 ‘학자의 삶’이 곧 ‘예술의 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증명한다. 한평생 고대 문자를 연구하며 수십 권의 저서를 남긴 그는, 그 연구 성과를 책 속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작품으로 풀어내며 대중과 교감하며 예술적 혼을 나누고 있다.

최 교수는 지난해 8월 말 교직에서 정년 퇴임 후 자신의 고향인 실행면에 자그마한 가옥을 마련하고 학문과 예술창작에 전념하며 인빈낙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최 교수는 전시회를 열어 “연구실에서만 머물던 글자들이 작품이 되어 사람들과 만나

는 순간이 가장 큰 보람”이라며 “이 전시회가 누군가에게는 마음에 힐링이 되고 위트가 되며 한편으로는 마음을 다지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한 전시장 한편, 오래된 문자들이 빛을 머금고 서 있는 공간에 선 관람객들은 어느새 발걸음을 멈춘다.

글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지내 온 삶과 시간, 그리고 학문과 예술에 대한 집념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회는 단순한 작품 전시를 넘어, 한 학자가 평생을 통해 중국 고대 문자와 씨름하며 쌓아온 사유와 열정이 어떻게 예술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울림의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작품 전시회 관람은 무료이며,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오보재 갤러리(대표 임수영)는 카페형 전시 공간을 전북대 내 예술가에게 15년 여간 아무런 대가 없이 무료로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시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예술가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어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히말라야 불심 담은 ‘탕카전’ 개막

완주군 삼례책마을, 20일부터 티베트 불화 46점 전시

완주군 삼례책마을(관장 박대현)이 오는 20일부터 ‘히말라야가 품은 불심: 18~19세기 티베트 탕카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탕카(Thangka)’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사이에 제작된 티베트 불화 46점으로, 티베트 불교의 중심지인 라싸(Lhasa) 지역 사원의 전문 화승들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물들은 한 사원의 서고에 장기간 보존되어 온 일괄 작품군으로, 동일한 화풍과 안료 사용, 엄격한 도상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해당 사원의 교화 전통과 신앙 체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탕카는 천 위에 그린 두부마리 형태의 불화로, 사원 의례와 수행에 사용되며 유목 생활 속에서 ‘이동식 신전’의 기능을 수행해 온 티베트 특유의 회화 양식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석가여래와 약사여래를 비롯해 관음보살, 타라보살, 그리고 마하칼라와 같은 호법신 도상 등 다양한 티베트 불교의 존상들을 한자리에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기획전은 지난해 개최된 ‘도석화와 서암모: 19세기 중국 민속신앙의 미학’에 이은 연속 기획으로, 히말라야와 동아시아 불교 미술의 상호 연관성을 조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무엇보다 광물성 안료와 금니로 표현된 화려한 색채, 중앙 본존과 협시를 배치하는 위계적



히말라야가 품은 불심: 18~19세기 티베트 탕카전

회면 구성은 한국 불화에도 매우 유사한 도상 구조를 보여준다. 이는 티베트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불교 미술이 공유하는 공통된 전통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는 삼례책마을 내 책박물관 제2전시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고창군이 '2026 명창초빙 판소리 아카데미' 개강식을 지난 17일 성황리에 개최했다.

고창군, '명창초빙 판소리 아카데미' 개강식 성황리 개최

고창군이 '2026 명창초빙 판소리 아카데미' 개강식을 지난 17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은 이번 아카데미는 신재효판소리공원에서 열렸으며, 군수와 내빈, 그리고 수강생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뜻깊은 출발을 함께했다.

명창초빙 판소리 아카데미는 판소리 유파의 전통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전문 교육 과정으로 △김세종제 춘향가 △동초제 심청가 △민요 △고법특강 등으로 운영된다.

특히 판소리 이론을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 선생의 정신이 깃든 고창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날 개강식에서 고창 출신 비조채선의 구성진 민요 공연과 고창 지역 어린이 소리꾼 이승우의 전통 판소리 축하 무대가 이어져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세대를 아우르는 무대를 통해 고창 판소리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조망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군산시, '문화 격차 해소'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본격 추진

군산시는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2026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

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관광, 체육활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군산시 지원 가능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61명 증가한 총 2만283명이다.

특히 올해는 1인당 지원금이 기존 14만 원에

서 15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청소년(13~18세)과 준고령층(60~64세)에게는 추가 1만 원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시는 미발급 대상자 발굴을 위한 개별 안내, 복지시설을 찾아가는 발급 서비스, 전화 주문을 통한 문화상품 구매 서비스 '문화누리장터' 운영 등 이용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김민호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